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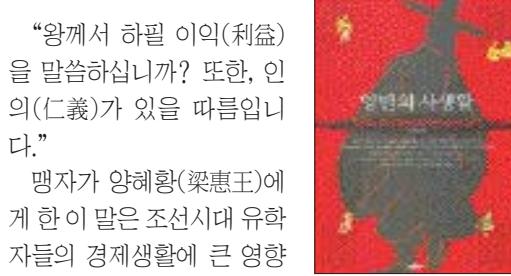
궁상 맞은 양반, 세상 시름 어찌할꼬...

새책

유학자 조병덕의 편지 1,700통으로 본 19세기 조선

양반의 사생활

하영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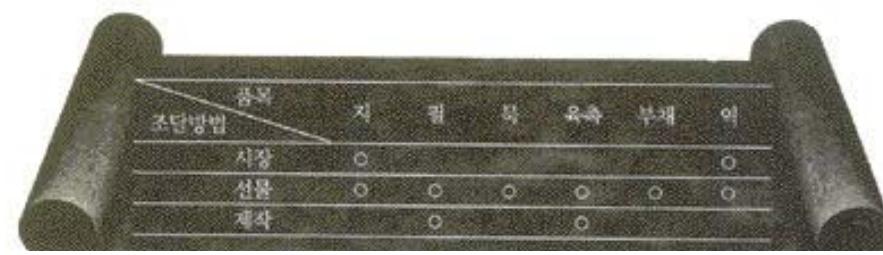
“왕께서 하필 이익(利益)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仁義)가 있을 때입니다.” 맹자는 양혜황(梁惠王)에게 한 이 말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이 말에 따라 이익을 거부하고 인의를 표방했다.

사회적 신분도 사(士), 농(農), 공(工), 상(商)으로 구분해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을 가장 천시했다. 유학자가 생활을 해결하려면 관리가 되어 녹봉을 받거나, 농사를 짓어야 했다.

고문서 연구가 하영희가 지은 ‘양반의 사생활’은 유학자 조병덕의 편지 1천 700통으로 19세기 조선을 들여다 본 책이다.

노론의 성리학자 조병덕(1800~1870) 역시 맹자의 말을 금과옥조로 삼았다. 서울살이를 하다가 선산이 있는 충청도 남포현 삼계리(현재 충남 보령시 미산면)로 낙향해 ‘낮에는 밭 고갈 밭에 독서하며’ (조경모독·朝耕暮讀), ‘자기 노역에 의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비기력불식·非其力不食)는 도학자의 길을 추구한다. 그러나 공자와는 본업인 글쟁이에게 농사는 혼탁호락한 것이 아니었다.

“농사 짓는 것도 전과 같지 못하여 세전(歲前)에



조병덕의 일용품 조달 방법

는 근근이 연명은 했으나 이제는 이것도 어려운데, 30명 가까운 식구가 굶어 죽을까 걱정입니다.” 장인에게 보낸 그의 편지다. 연말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양식이 떨어지는 절박한 상황을 적고 있다.

가난은 엄격한 유교사회 조선의 상징인 가부장적 종법도 무너지게 한다.

“여же 산소 14위(位)와 묘사(廟祀) 3곳의 가을 재사를 시작부터 해거울까지 단지 네 형과 돌아서 지냈단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100명이 넘던 가솔이 집안 종대사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양반’은 ‘모경야독(暮耕夜讀)’ 하려던 유학자이다. 과거에 급제해 풍족한 녹봉을 누리는 사대부가 아니다. ‘사생활’이라는 말에 끌려 은근히 ‘이우동’ 같은 섹스 스캔들을 상상했다면 책장을 덮으시라. 하지만, 조선 후기 몰락해 가는 양반의 일상을 보려는 저지 호기심이 있다면 남의 편지를 훔쳐읽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저자의 해설이 참 친절하다.

유학자의 편지는 지극히 사적인데, 금전거래, 빚, 가족 간 갈등, 아들에 대한 실망, 질병 등 사생활 중

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이다.

“이번 과거 응시 비용은 동쪽에서 빌리고 서쪽에 서 구걸하여 배를 채우는 형편으로 볼 때 어찌 돈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마산 논 두 마지기를 팔아 과거 비용으로 한다.” 양식이 떨어졌다. 벽석 빌리는 곳에 편지를 쓸 때 인사 치밀 것이 없어서는 안 되니, 부채를 속히 보내라.”

양반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을 팔아서라도 자식이 과거를 보게 해야 하고, 양식이 떨어졌으면서도 인사치례 부채가 필요했다. 벼슬아치의 가업 주구(苟斂謀求)를 비판하면서도 수령인 조카들에게는 문방구와 식료품 등 일상용품을 보내라고 하는 이중성도 보인다.

아들의 토호질 때문에 관아의 장교와 포졸이 집에 쳐들어와서 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죽은 부인을 남의 땅에 세웠다가 파내는 수도도 당한다. 편지에는 조선시대의 관혼상례, 음식, 농사, 교통, 조명, 부채, 질병 등 일상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서얼, 노비, 상놈, 첨, 아전 등 다양한 인간상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역사·1만5천원)

/김주정기자 jjnews@kangju.co.kr



▲김홍희의 몽골 방랑-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 했다=사진이룬, 여행전문 수필가, 다수 사진작가 등으로 활동 중인 김홍희가 몽골의 대자연 속에서 만난 사람과 자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저자의 따뜻한 시선이 물어나는 글도 함께 실렸다.

〈예담·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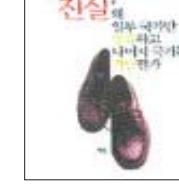
▲꽃섬고개 친구들=‘괭이부리말 아이들’ ‘거대한 뿌리’ 등의 성장 소설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한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왔던 김중미 작가의 신작. 산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20대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았다.

〈검동소·1만원〉



▲애틋함의 로마=소설가, 사회 평론가 등 활성화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복거일의 SF 단편소설집. ‘서울, 2029년 겨울’부터 ‘꿈꾸는 지님의 노래’ ‘기적의 해’ 등 미래시점을 배경으로 하거나 로봇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 등 모두 10편의 단편소설이 실렸다.

〈문학과 지성사·1만원〉



▲시장의 진실-왜 일부 국가만 부유하고 나머지 국가는 가난한가=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존 케이의 경제 분석서. 역사·지리·경제 이론 등을 바탕으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차이가 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파헤쳤다.

〈에코리브리·2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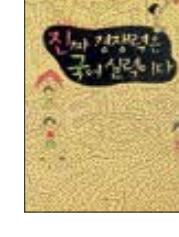
▲독서-김열규 교수의 열정적 책 읽기=한국 학계의 석학으로 꼽히는 김열규 전 서강대교수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독서권력을 담았다. 이밖에 ‘꼼꼼읽기’ ‘클로스 리딩’ 등 저자가 터득한 다양한 독서 기법도 소개됐다.

〈비아북·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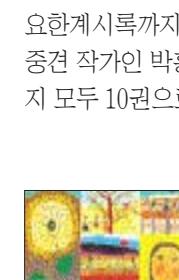
▲반민주적인, 너무나 반민주적인=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와 그의 사상을 따르는 니체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서. 영남대 법학과 박홍규 교수가 니체의 생애와 작품을 재검토하고 국내외의 니체주의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필액·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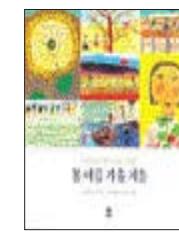
▲말짱글짱 흥성호 기자의 진짜 경쟁력은 국어 실력이다=일간지 기자인 저자가 표준어, 헤갈려서 잘못쓰는 단어, 외래어와 고유어, 북한말 등을 비롯해 약어·신조어까지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좋은 문장을 만드는 법과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법도 소개했다.

〈예담·1만3천원〉



▲만화 인물 성경 1~3권=인물로 보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종종 작가인 박종윤 화백 등 11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내년 봄까지 모두 10권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바다출판사·각 권 8천800원〉



▲일하는 아이들이 그린 봄 여름 가을을 거울=아동 문학가 이오덕 선생의 5주기를 맞아 고인이 가르쳤던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그림을 한데 묶은 화집. 풍경화, 인물화 등 다양한 그림은 물론 시와 산문도 함께 실렸다.

〈보리·5만원〉

광주비엔날레 개막… 미술, 아는 만큼 보인다

이슈,

중국 현대 미술

이보연 지음

서양화 감상 포인트

다이애나 뉴월 지음

유영석 옮김

무서운 그림

나가노 교코 지음

이연식 옮김



지난 5일 개막한 제 7회 광주비엔날레를 비롯, 전국에서 미술 관련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다채로운 미술 관련 서적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슈, 중국 현대 미술(시공아트·2만7천원)’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중국 미술 작가들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중국 청화대 미술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이보연씨가 쓴 이 책에는 이빨을 드러내 놓고 웃는 중국인의 얼굴로 유명한 위에민쥔, 건달을 소재로 작

업한은 광리쥔, ‘대가족’ 시리즈로 알려진 장샤오안 등 중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12명의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5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책에는 각 작가의 대표작과 작업 모습 등 다양 한 사진 자료가 함께 담겼다.

미술교육가인 다이애나 뉴월이 지은 ‘서양화 감상 포인트’(아름나루·1만8천원)는 미술사의 중요했던 순간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작품을 통해 그림에 담긴 주제와 사상, 문화를 더듬어본 책이다.

쇠리의 ‘그랑 자트 샘의 일요일 오후’, 베르메르의 ‘우유 따는 하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등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200여점은 누드화, 초상화, 종교화, 풍경화 등 9개 장르로 분류, 알기 쉽게 해석했다.

나카노 교코(와세다대 대학) 교수는 “무서운 그림-아름다운 명화의 섬뜩한 뜻 이야기”(세미콜론·1만3천500원)를 죽음, 광기 등 공포를 일으키는 작품들을 통해 또 다른 ‘미의식’을 들어다 봤다.

저자는 ‘진짜’ 무서운 그림인 고야의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는 물론이고 드가의 ‘에투알’ 등 공포와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그림이 숨기고 있는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비드의 ‘마리 앙투아네트 최후의 초상’, 보티첼리의 ‘나스타조 텔리 오네스티의 이야기’ 등 모두 20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김미은기자 mekim@k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3-1140, 5210 원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
점포가 절 혁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 (02)23-8216 원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 금남로 대로점 대지 231㎡(70평) 5층 20억
· 충정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 충정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 충정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 황금동 대지 132(40평) 3층 10억

· 광신동 구사동 대지 537(163평) 4층 15억
· 블루동 천현대로변 코너 대지 294(89평) 4억
· 용봉동 3면도로 단층 대지 1,190(360평) 8억
· 월산동 대로변 대지 390(118평) 6층 6억5천평

토지매매

· 운동동 4차선길 2,627㎡(804평) 길 160m
· 운동동 녹지 3,966㎡(1,020평) 294천만
· 월드컵 대로변 주거지 1,090(330평) 4억
· 용산동 25m길 2,315(700평) 3.3m길 250m
· 용산동 16.5(50평) 75만
· 도산동 전철역앞 주거지 6,611(2천평) 20억
· 만화동 주거지 11,900(3,600평) 3.3m길 80만

전원주택

· 청풍동 주거지 760㎡(230평) 70만
· 금곡동 주거지 1,490(450평) 1억4천만
· 운동동 대지 463(140평) 1억1천만
· 지산동 녹지 16,530(55평) 75만
· 지산동 전철역앞 주거지 6,611(2천평) 20억
· 만화동 주거지 대지 660(200평) 1억
· 화정동 소재지 대지 2,300(700평) 2억

임야

· 회수 도곡 관리지역 52,900㎡(1만6천
평) 8만
· 회수 도곡 예산 105,700(3만2천평) 3억
· 회수 도곡 3,200㎡(3.3m길 62m)
· 회수 남현 관리지역 165,000(5만평) 5억
· 회수 한현 218,000(6만6천평) 3.3m길 6
천평
· 회수 이양 53,000(1만 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 조대 대로변 대지 760㎡(230평) 8억
· 광운동 3면도로변 대지 330㎡(3.3m길 400m)
· 회수 계곡 6,600(2천평) 8천만
· 회수 계곡 6,600(2천평) 1억
· 회수 계곡 6,600(2천평) 1억
· 회수 계곡 6,600(2천평) 1억
· 회수 계곡 6,